

청소년 자녀를 둔 한부모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개인적 자원과 가족자원을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Single Parents' Grit
: Focusing on Personal Resources and Family Resources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김 가 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 수 박 정 윤*

Dept. of Psychology, Chung Ang University
Master's course Kim, Gayeon
Dept. of Psychology, Chung Ang University
Professor Park, Jeungyu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초록〉

그릿(Grit)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열정과 인내를 의미하며,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예측하는 성격 특성이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한부모의 그릿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자원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4차년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총 284명의 한부모를 대상으로 빈도, 평균 등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한부모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적 자원(심리자원, 생활시간 및 건강 자원), 가족자원(가족관계 및 자녀 자원, 경제자원)을 탐색하였다. 첫째, 상관관계 분석결과, 한부모의 그릿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연령, 학력, 개인적 자원 중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스마트폰 의존도, 운동시간, 아침식사 횟수, 가족자원 중 가구원수, 자녀성적만족도, 자녀학교생활만족도, 주관적 가정경제수준, 월평균 사교육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학력, 개인적 자원 중 자아존중감, 근로 여부, 스마트폰 의존도, 운동시간, 가족자원 중 가구원수, 자녀성적만족도,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이 한부모의 그릿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 자녀양육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한부모의 그릿을 증진시키는 개인 및 가족 자원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한부모가족, 부모의 그릿, 청소년 자녀, KCYPS 2018

〈Abstract〉

Grit is a person's passion and perseverance that drive them to achieve long-term and meaningful go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ractical resources that can affect single parents' grit. Using the fourth-year panel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descriptive statistics were

*주저자: 김가연(mf6996@cau.ac.kr), <https://orcid.org/0009-0009-3784-7727>

**교신저자: 박정윤(pjy4838@cau.ac.kr), <http://orcid.org/0000-0002-0755-9697>

produced and 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284 single parent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also performed to explore the demographic factors, personal resources(psychological, lifestyle/health), and family resources(family relationships/child, economic) that affect single parents' grit. First, the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single parents' grit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ge, education status, life satisfaction, happiness, self-esteem, smartphone dependency, physical activity time, frequency of breakfast consumption, household size, parent's satisfaction with child's school achievement and school adjustment, subjective family economic status,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Second,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education status, self-esteem, employment status, smartphone dependency, physical activity time, household size, parent's satisfaction with child's school achievement, and subjective family economic status we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single parents' grit.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s directions for programs and policies to provide a stable environment for single-parent families to raise their children.

Key words: single-parent family, parent's grit, KCYPS 2018

I. 서론

사람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하며, 개인을 둘러싼 환경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결혼이나 출산, 이혼과 같은 사건은 가족에 큰 변화를 불러오며, 가족은 계속해서 변화에 적응해나가야 한다. 한국사회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나 고령화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가족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는데, 2021년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이 수립되었다. 이는 한부모가족 정책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최초의 시도이며(여성가족부, 2023), 한부모가족을 위한 향후 정책 및 세부 과제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부모가족(single-parent families)이란 이혼, 사별, 유기, 미혼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한부모가구 비율은 2014년(10.5%)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기준 한부모가구 비율은 6.9% 정도이다(통계청, 2021b). 이는 혼인율·출산율 감소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기인하며, 한부모가구 비율 자체보다는 한부모가족의 형성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족의 81.6%는 이혼, 11.6%는 사별, 6.8%는 기타 이유로 형성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이 된 배경 중 이혼의 비율은 늘고 사별과 기타의 비율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다(여성가족부, 2021). 한국사회에서 이혼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별거나 미혼한부모와 같은 다양한 가족 유형의 증가가 예상되기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한부모가족으로의 변화는 가족의 기능과 역할에서의 재조정이 요구

된다. 한부모가족의 부모는 양부모가족 시기보다 수행해야 할 과업이 많아지고, 부모로서의 지위나 역할이 달라진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한부모가족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요구되는 발달과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 스트레스는 가중되어 부적응을 초래한다.

선행연구들은 한부모가 홀로 자녀양육과 생계를 전담하며 겪는 어려움을 다수 보고하고 있다(김혜선·김은하, 2010; 문은영, 2011; 성미애, 2020; 임세와·박주혜, 2018; 장혜원·최하영, 2021; 최하영·김민영, 2020). 한부모가 경제활동에 집중하는 경우 자녀를 돌볼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양육을 전담하면 직업 선택의 폭이 제한되며 소득이 감소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커진다(김혜선·김은하, 2010; 문은영, 2011; 임세와·박주혜, 2018; 최하영·김민영, 2020). 또한 한부모는 한부모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부정적 시각을 의식하며, 사회적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김혜선·김은하, 2010; 문은영, 2011). 한부모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라면 자녀문제에 대해 의논할 상대가 없어 자녀양육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문은영, 2011). 자녀양육 어려움은 한부모의 정신건강과도 관련이 있기에(노영희·김상인, 2016; 연은모·최효식, 2021; 이효진·박수빈·김희정, 2022),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에게 어려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다. Cashion(1982)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대다수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면 양부모가족만큼 성공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으로의 변화에 맞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게 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으며,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자녀와의 연결성이 강화되었다는 경험을 보고하였다(김혜선·김은하,

2010; 백은영·이명우, 2018; 임세와·박주혜, 2018; Whisenhunt et al., 2019). 한부모는 원가족이나 친구, 종교활동 등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활용하고, 국가나 지역사회로부터 생계지원이나 지역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으며 어려움에 대처해나가기도 하였다(이만수·박정윤, 2022; 임세와·박주혜, 2018; Lindblad-Goldberg, 2006).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할 때 한부모의 삶을 문제적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간과되어 온 한부모의 자원과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어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긍정심리학에서는 성공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그릿(Grit)'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과 인내를 의미한다(Duckworth et al., 2007). 즉, 그릿은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리더라도 목표에 대한 일관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성격특성을 말한다. 초기 그릿에 대한 관심은 성취에 대한 신뢰로운 예측에 초점을 맞춰 학업 및 직무 영역에 중심을 두었다(Credé, Tynan & Harms, 2017). 그릿이 높은 사람은 학업 성취에 긍정적 결과를 보일 수 있으며(서미옥, 2019; Credé et al., 2017), 그릿은 직무만족을 높이고, 소진은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린·어성연, 2022; 정수진·손영우·이수란, 2021). 그러나 그릿은 점차 영역을 확장하여 심리적 건강이나 적응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그릿은 자아존중감(이혜원·탁정화, 2018), 자기효능감(이미란·이혜원·탁정화, 2017), 통제소재(권대훈, 2016) 등의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아침식사 빈도와 운동시간(Zepetnek et al., 2021), 스마트폰 의존도(이정민·정혜원, 2022) 등의 생활습관이나 부모-자녀관계에서의 대화 시간(서현원·이선영·임혜정, 2021) 등의 가족요인이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으며, 그중에서도 한부모가족이라는 가구 형태를 반영하여 한부모의 그릿을 예측하는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확인된 바 없으므로, 한부모의 그릿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릿은 높을수록 행복하고(서미옥, 2019),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며(류영주·양수진, 2017), 마주하는 크고 작은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김진구·박다은, 2018). 그릿은 가족 영역에도 적용되어 부모 그릿이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복을 예측할 뿐 아니라 자녀양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윤미리·이현정·홍세희, 2020; 황용재·김창겸, 2020). 그릿은 양육불안을 감소시키며(황미송·윤성민, 2022), 양육열정과 양육효능감을 촉진한다(박주하·배유진·양수진, 2021; 정예림·김예본·양수진, 2021).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한부모의 그릿 역시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건강과 자녀양육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즉, 한부모의 그릿은 한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관계망 축소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자녀양육에 관심을 가지

고 꾸준히 노력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며,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의 그릿을 높일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한부모가족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요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장명선·이영호, 2016).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한부모는 교육비 부담을 크게 느끼며,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여성가족부, 2021; 장명선·이영호, 2016; 장혜원·최하영,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부모의 개인적 자원과 가족자원이 한부모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가 자녀양육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릿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자원들을 파악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한부모의 그릿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긍정심리학에서 새롭게 조명된 '그릿(Grit)'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열정과 인내를 의미하며(Duckworth et al., 2007), 성공과 성취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비교적 잘 예측하는 성격 특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릿은 일반적으로 '끊임없는 노력(perseverance of effort)'과 '흥미의 일관성(consistency of interest)'이라는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 Quinn, 2009). 끊임없는 노력은 어려움을 맞닥뜨리더라도 노력하는 경향을 말하며, 숙련되기 위해서는 초기 실패를 견뎌야하기 때문에 노력의 지속성이 성공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흥미의 일관성은 장기간에 걸쳐 목표와 관심사를 꾸준히 유지하는 경향성을 말하며, 숙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흥미의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Ericsson, Krampe & Tesch-Römer, 1993). 즉, 어려움을 마주해 노력을 멈추거나 목표를 계속해서 바꾸는 사람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

한부모의 그릿은 한부모로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요구와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한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부모의 자녀양육 관련 자원의 측면에서 한부모의 그릿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정도이므로, 부모의 그릿의 양상과 특성을 밝힘으로써 한부모의 그릿

에도 이를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그릇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불안을 적게 느끼며, 높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보였다(윤미리 외, 2020; 황미송·윤성민, 2022). 또한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릇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양육 열정과 양육 효능감을 촉진하며, 어머니가 낮은 산후 우울을 보이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박주하 외, 2021; 정예림 외, 2021). 초산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새로 부여받으며, 자녀양육에 큰 부담을 느끼는 시기에 있다. 초산모의 그릇이 긍정적으로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한부모가 홀로 자녀양육과 생계를 전담하며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릇이 높은 경우 긍정적 정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그릇은 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그릇은 자녀의 그릇을 정적으로 예측한다. 즉, 부모의 그릇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그릇 수준은 높아지며, 그릇의 수준도 세대 간 전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윤기봉, 2020; 전향신·박분희, 2020; 황용재·김창겸, 2020; Joy et al., 2020). Joy et al.(2020)는 부모 그릇과 자녀 그릇의 관계에 대하여 부모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를 자녀가 모델링함으로써 그릇을 발달시키거나간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또한 부모의 그릇 수준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는 자녀의 발달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그릇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고 구조를 적절히 제공하며 애정적 양육을 하여 자녀가 목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게 한다(윤기봉, 2020; 황용재·김창겸, 2020). 자녀의 높은 그릇은 학교적응이나 학업성취로 이어질 뿐 아니라 행복감 같은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점(서미옥, 2019)을 함께 고려할 때, 부모의 높은 그릇은 자녀의 그릇을 증진시키며, 높아진 자녀의 그릇이 자녀의 발달을 촉진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부모의 그릇은 한부모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긍정적으로 양육을 지속하게 하여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고, 한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예측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2. 한부모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부모의 그릇의 효과성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부모의 그릇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한부모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성인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고, 한부모의 그릇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부모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인 대상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그릇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Credé et al., 2017; Duckworth et al., 2007; Zepetnek et al., 2021). Duckworth et al.(2007)는 25세에서 65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학력을 통제하고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릇의 총점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그릇이 변화 가능하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달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었다(Duckworth, 2016). 반면, 그릇은 학력을 통제하고도 연령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Rhodes & Giovannetti, 2022). 성별은 그릇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며(Duckworth & Quinn, 2009; Eskreis-Winkler et al., 2014; Rhodes & Giovannetti, 2022; Zepetnek et al., 2021), 매우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하였다(Credé et al., 2017).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그릇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Zepetnek et al., 2021), 높은 교육수준은 그릇의 하위변인인 흥미의 일관성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도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이 많아 실패를 해도 이겨낼 수 있어 여러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Kwon, 2021).

부모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자원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그릇은 삶의 만족도, 행복감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윤미리 외, 2020; Credé et al., 2017). 또한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그릇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하문선, 2020).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믿음인 자아존중감이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의 동기로써 작용하여 그릇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다(이혜원·탁정화, 2018; 하문선, 2020). 그릇과 창의성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김숙미·구광현·김보현, 2020), 창의적 인성이 높을수록 그릇이 높았다(서현아·엄세진, 2019).

부모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시간 및 건강 자원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근로를 하는 경우 그릇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Zepetnek et al., 2021). 또한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을 많이 할수록, 더 나은 식습관을 실천할수록 그릇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주당 300분 이상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을 한 집단과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은 집단이 각각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그릇을 보였다(Zepetnek et al., 2021). 한편,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그릇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에 의존하여 자신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습관화되며,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흥미도 사라져 그릇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정민·정혜원, 2022).

부모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 및 자녀 자원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간 대화시간이 부모와 자녀의 그릇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부모와 자녀 모두 높은 그릇을 보였다(서현원 외, 2021; 윤기봉, 2020).

부모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자원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가구 소득과 부모의 그릇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황용재·김창겸, 2020),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지각하는 경우 자기통제감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 그릇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Kwon, 2021).

부모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가족유형을 고려한 선행연구는 더더욱 찾기 어렵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에 초점을 맞춰 그릇의 양상을 탐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자원들을 탐색하여 한부모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한부모의 그릇과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한부모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의 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KCYPS 2018은 아동·청소년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패널데이터로, 2018년부터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1년 주기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4차년도 자료는 2021년 조사되어 2022년 12월에 공개되었다(황진구·전현정·이용해, 2022).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한부모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자원 및 가족자원을 탐색하기 위해 중학교 패널의 보호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21년 제4차 조사를 완료한 중학교 패널(4차 조사 시점 고등학교 1학년)의 보호자 데이터에서 부모 중 한 사람만 자녀와 함께 사는 한부모가족의 부모 데이터만 활용하였으며, 한부모 292명 중 연구의 주요변인에 응답하지 않은 결측치를 제외하고 한부모 284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3. 측정도구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KCYPS 2018 4차년도 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한부모의 그릇,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적 자원과 가족자원을 포함하였다.

개인적 자원은 심리자원과 생활시간 및 건강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심리자원으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창의적 성격을 포함하였다. 생활시간 및 건강 자원은 한부모의 시간사용 및 건강상태와 연관이 있는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 여부, 스마트폰 의존도, 건강상태 평가, 운동시간, 아침식사 횟수를 살펴보았다.

가족자원은 가족관계 및 자녀 자원과 경제자원으로 구분하였다. 가족관계 및 자녀 자원으로는 가족과의 통화, 가족과의 문자, 자녀와 보내는 시간, 자녀수, 가구원수, 자녀성적만족도, 자녀학교생활만족도를 포함하였다. 경제자원은 월평균 가구소득, 주관적 가정경제수준, 월평균 사교육비를 포함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변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연령, 성별, 학력을 포함하였다.

2) 개인적 자원

(1) 심리자원

한부모 개인의 심리자원으로는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창의적 성격을 포함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Diener et al. (1985)의 삶의 만족도 척도(SWLS)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이 번안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이 이상에 가까운 지 등을 묻고 있다. 총 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 척도의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행복감은 현재 자신의 행복감과 타인과 비교하였을 때의 자신의 행복감을 평가하고 있다.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1문항을 제외하고 총 3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현재 자신의 행복감을 측정하는 2문항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1점에서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타인과 비교한 자신의 행복감을 측정하는 1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행복감 척도의 Cronbach's α 는 .78이었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이 번안한 것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지,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지 등을 묻고 있다.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삭제하고 총 9문항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으며, 2, 5, 6, 9번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창의적 성격은 Gough & Heilbrun(1983)의 창의적 특성 척도(CPS) 원문항을 변안한 최인수와 표정민(2014)의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창의적 성격 척도는 '통찰력이 있는', '관심이 다양한' 등의 18개의 창의적 성격 특성과 '관습적인', '관심의 폭이 좁은' 등의 12개의 비창의적 성격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신을 잘 표현하는 단어를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선택한 후, 선택한 형용사가 창의적 성향 문항이면 1점을 부여하고 비창의적 성향 문항이면 1점을 감점하며, 총점의 범위는 -12점에서 18점까지이다. 창의적 성격 척도의 Cronbach's α 는 .70이었다.

(2) 생활시간 및 건강 자원

한부모의 생활시간 및 건강 자원에는 근로 여부, 스마트폰 의존도, 건강상태 평가, 운동시간, 아침식사 횟수가 포함되었다.

근로 여부는 경제적 측면과도 관련이 있으나 한부모 개인의 시간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김의숙·박은정, 2018) 생활시간 및 건강 자원에 포함하였다. 근로 여부는 지난 일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였는지 여부를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의존도는 총 15문항으로 김동일 외(2012)가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을 평가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5, 10, 15번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의존도 척도의 Cronbach's α 는 .85이었다.

건강상태 평가는 1점 '전혀 건강하지 않다'부터 4점 '매우 건강하다'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함을 의미한다. 운동시간은 지난 일주일 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을 묻고 있으며 1점 '없다'부터 5점 '4시간 이상'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난 일주일 간 운동한 시간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아침식사 횟수는 지난 일주일 간 아침식사를 한 날을 묻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 간 하루도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0일부터 지난 일주일 간 매일 아침식사를 한 7일까지 숫자가 클수록 지난 일주일 간 아침식사를 한 날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3) 가족자원

(1) 가족관계 및 자녀 자원

한부모의 가족관계 및 자녀 자원에는 가족과의 통화, 가족과의 문자, 자녀와 보내는 시간, 자녀수, 가구원수, 자녀성적만족도, 자녀학교생활만족도가 포함되었다.

가족과의 통화와 가족과의 문자는 각 항목별로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묻고 있으며, 문자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포함하였다. 각각 1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부터 4점 '자주 사용한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는 시간이 많음을 의미한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자녀별로 하루에 평균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을 합산하여 자녀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자녀 성적만족도와 자녀학교생활만족도는 각각 자녀의 지난 학기 학교성적과 학교생활에 대한 한부모의 만족도를 묻고 있으며,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2) 경제자원

한부모의 경제자원에는 월평균 가구소득, 주관적 가정경제수준, 월평균 사교육비가 포함되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점 '소득 없음'부터 12점 '1,000만 원 이상'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음을 의미한다.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은 '최하' 1점부터 '최상'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한부모가 자신의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지함을 의미한다.

4) 그릇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그릇으로 Duckworth & Quinn(2009)이 개발하고 김희명과 황매향(2015)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그릇 척도를 활용하였다. 그릇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2문항("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와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릇 척도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릇이 높음을 의미한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적인 목표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한부모에 적용하면 한부모의 그릇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그릇 척도의 Cronbach's α 는 .60이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IBM SPSS Statistic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이 실시되었다. 첫째, 한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개인적 자원, 가족자원, 그릇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그릇과 개인적 자원, 가족자원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개인적 자원, 가족자원이 한부모의 그릇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한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한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4·50대가 95.8%(272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한부모의 성별은 여성이 73.9%(210명), 남성이 26.1%(74명)로 여성 한부모의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2.1%(148명)로 가장 많았고, 대학 졸업(초대졸 포함) 43.7%(124명), 대학원 졸업 4.2%(12명) 순이었다. 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한부모의 직업 유형은 '서비스직 종사자'가 28.5%(81명)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종사자' 14.8%(42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2.3%(35명), '단순노무 종사자' 10.6%(30명)가 10%대의 분포를 보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84)		
변인	구분	빈도(%)
연령	30세 이상-40세 미만	3(1.1)
	40세 이상-50세 미만	129(45.4)
	50세 이상-60세 미만	143(50.4)
	60세 이상	9(3.2)
성별	남	74(26.1)
	여	210(73.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8(52.1)
	대학 졸업(초대졸 포함)	124(43.7)
	대학원 졸업(석/박사)	12(4.2)
	관리자	17(6)
직업 유형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5(12.3)
	사무직 종사자	42(14.8)
	서비스직 종사자	81(28.5)
	판매 종사자	21(7.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2(7.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3.5)
	단순노무 종사자	30(10.6)
	기타	12(4.3)

2. 한부모의 관련 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성

조사대상자 한부모의 그릇, 개인적 자원과 가족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그릇과 그릇 관련 변인(이분형 변수인 근로 여부 제외)은 모두 왜도는 절댓값 3 미만이며, 첨도는 절댓값 8 미만으로 다변량의 정규성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조사대상자 한부모의 그릇 정도는 4점 만점으로 측정되어 평균이 2.71점(SD=0.39)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의 그릇 점수는 중간값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조사대상자 한부모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힘을 적절하게 가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인적 자원 중 심리자원에서 응답자의 자아존중감 평균이 2.94점(SD=.41)으로 높았는데 조사대상자 한부모는 전반적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의 평균은 2.87점(SD=.41)으로 중간값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삶의 만족도 평균은 2.37점(SD=.57)이었다. 창의적 성격은 -12점부터 18점까지 범위에서 평균 0.29점(SD=2.77)이었다.

셋째, 개인적 자원 중 생활시간 및 건강 자원을 살펴보면 근로 여부는 '예'가 95.1%(270명), '아니오'가 4.9%(14명)로 응답자 한부모의 대다수가 근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의존도는 4점 만점으로 측정되어 평균 1.88점(SD=.43)으로 조사대상자 한부모는 스마트폰 과의존의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건강상태 평가는 4점 만점에서 평균 2.94점(SD=.56)으로 조사대상자 한부모는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운동시간은 5점 만점으로 평균 2.17점(SD=1.32), 아침 식사 횟수는 한 주간 평균 3.69일(SD=2.33)로 비교적 높은 편차를 보여 응답자 전체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진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가족자원 중 가족관계 및 자녀 자원을 살펴보면, 가족과의 통화와 가족과의 문자는 각각 평균 3.5점(SD=.58), 평균 3.41점(SD=.58)으로 가족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보낸 시간은 하루 평균 210분(SD=145.08), 즉 3시간 30분 정도로 조사대상자 한부모는 자녀 1명당 하루에 3시간 30분 정도를 자녀와 함께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를 둔 한부모의 절반 정도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한부모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양이 부족한 양상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성미애, 2020; 여성가족부, 2021; 허수연, 2018)와 비교할 때 본 연구대상자 한부모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자녀수는 평균 2명(SD=.75), 가구원수는 평균 3명(SD=.87) 정도였다. 자녀성적만족도와 자녀학교생활만족도는 각각 1점에서 5점 범위로 평균 3.2점(SD=.80), 평균 3.52점(SD=.69)으로 나

〈표 2〉 조사대상자의 관련 변인의 경향성

(N=284)

변인	하위영역	M(SD)/N(%)	왜도	첨도	
그릿	그릿 (범위: 1-4점)	2.71(.39)	0.11	0.33	
심리자원	삶의 만족도(범위: 1-4점)	2.37(.57)	-0.39	-0.13	
	행복감 (범위: 1-4점)	2.87(.41)	-0.17	1.36	
	자아존중감 (범위: 1-4점)	2.94(.41)	-0.06	-0.40	
	창의적 성격 (범위: -12점-18점)	0.29(2.77)	0.15	-0.04	
	개인적 자원	예 근로 여부	270(95.1) 14(4.9)		
생활시간 및 건강 자원	스마트폰 의존도 (범위: 1-4점)	1.88(.43)	-0.01	-0.63	
	건강상태 평가 (범위: 1-4점)	2.94(.56)	-0.15	0.65	
	운동시간 (범위: 1-5점)	2.17(1.32)	0.82	-0.57	
	아침식사 횟수(범위: 1-7일)	3.69(2.33)	-0.12	-1.11	
가족관계 및 자녀 자원	가족과의 통화 (범위: 1-4점)	3.5(.58)	-0.67	-0.53	
	가족과의 문자 (범위: 1-4점)	3.41(.58)	-0.39	-0.71	
	자녀와 보낸 시간(분)	209.77(145.08)	1.22	1.62	
	자녀수(명)	2.07(.75)	0.39	0.26	
	가구원수(명)	3.21(.87)	0.52	0.32	
	자녀성적만족도 (범위: 1-5점)	3.20(.80)	-0.13	0.30	
	자녀학교생활만족도 (범위: 1-5점)	3.52(.69)	-0.18	0.21	
가족 자원	100만 원 미만	13(4.6)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7(16.5)			
경제자원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74(26.1) 66(23.2) 43(15.1) 41(14.4)	0.93	1.85
	주관적 가정경제수준 (범위: 1-5점)	2.59(.60)	-0.66	0.25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30.77(31.10)	1.09	1.15	

타나 조사대상자 한부모는 자녀의 성적에 대해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느끼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족자원 중 경제자원을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26.1%(74명)로 가장 많았으며, 400만원 미만이 70.4%(200명)를 차지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자 한부모 다수가 통계청(2021a)에 따른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인 416만9천원에 못 미치는 소득수준임을 보여준다.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은 1점에서 5점 범위로 평균 2.59점(SD=.60)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 한부모는 현재의 가정경제수준을 ‘중’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평균 30.77만원(SD=31.10)으로 나타나 응답자 간 큰 편차를 보였다.

3. 한부모의 관련 변인 간 관련성

한부모의 그릿과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적 자원, 가족자원 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 결과, 한부

모의 그릿은 연령($r=.11, p<.05$), 삶의 만족도($r=.24, p<.001$), 행복감($r=.28, p<.001$), 자아존중감($r=.35, p<.001$), 운동시간($r=.20, p<.001$), 아침식사 횟수($r=.12, p<.05$), 자녀성적만족도($r=.17, p<.01$), 자녀학교생활만족도($r=.19, p<.001$), 주관적 가정경제수준($r=.21, p<.001$), 월평균 사교육비($r=.12, p<.05$)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학력($r=-.10, p<.05$), 스마트폰 의존도($r=-.30, p<.001$), 가구원수($r=-.16, p<.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한부모는 그릿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이 한부모의 그릿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운동을 많이 하거나 아침식사를 자주 챙겨먹는 생활습관은 높은 한부모의 그릿과 관련이 있었으며, 높은 스마트폰 의존도는 낮은 한부모의 그릿과 관련성을 보였다. 자녀의 성적이나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한부모는 그릿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가구원수가 많을 때 한부모의 그릿이 낮았다. 이에 더해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지각하거나 월평균 사교육비 액수가 많다면 한부모의 그릿도 높았다.

〈표 3〉 조사대상자의 관련 변인 간 관련성

(N=284)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	-																							
2	.11*	-																						
3	-.08	-.23***	-																					
4	-.10*	-.01	-.07	-																				
5	.24***	.02	-.02	.12*	-																			
6	.28***	-.06	.10*	.10*	.52***	-																		
7	.35***	-.01	-.08	.00	.48***	.63***	-																	
8	.10	.00	-.03	.14**	.22***	.41***	.41***	-																
9	-.08	.12*	-.14*	.02	.00	-.10*	.01	.06	-															
10	-.30***	-.10*	.12*	.16**	-.01	-.15**	-.31***	-.08	-.05	-														
11	.10	.02	-.21***	.09	.40***	.31***	.36***	.24***	.15**	-.03	-													
12	.20***	.10*	-.09	.18**	.16**	.19**	.03	.09	.08	-.04	.10*	-												
13	.12*	.13*	.04	-.03	.20***	.17**	.02	.13*	.02	.01	.13*	.05	-											
14	.07	-.09	.06	-.07	.10*	.05	.10*	.03	-.08	-.12*	-.01	.05	.01	-										
15	.06	-.10*	.15**	-.12*	.06	.04	.08	.04	-.09	-.07	.01	.01	-.06	.50***	-									
16	-.02	-.20***	.13*	.05	-.02	-.02	.07	-.14**	-.11*	-.12*	-.03	.05	-.08	.19***	.21***	-								
17	-.09	-.10	.15**	-.14**	-.10*	-.08	-.11*	-.05	.06	.01	.02	-.12*	-.15**	.04	.10	.06	-							
18	-.16***	-.13*	-.03	-.04	-.05	-.07	-.08	-.03	.02	.10	.04	-.09	-.03	.05	.03	.11*	.64***	-						
19	.17**	-.05	.00	.02	.18**	.15**	.01	-.01	.08	-.08	.11*	.09	.04	.02	-.02	.03	.04	.06	-					
20	.19***	-.06	.05	-.07	.17**	.21***	.20***	.03	.03	-.18**	.11*	.11*	-.04	.04	.00	.00	-.08	.00	.45***	-				
21	.03	.01	-.10*	.42***	.26***	.15**	.02	.07	.22***	.10*	.18**	.18**	.17**	-.04	-.12*	-.21**	-.11*	.02	.14**	.02	-			
22	.21***	.03	-.06	.26***	.38***	.29***	.15**	.10	.06	.13*	.27***	.14**	.11*	-.06	.00	-.22***	-.05	.03	.19**	.18**	.54***	-		
23	.12*	-.01	.09	.30***	.17**	.09	.06	-.01	-.01	-.02	.05	.17**	.05	.10*	.08	.08	-.22***	-.24***	.02	.02	.42***	.28***	-	

* $p < .05$, ** $p < .01$, *** $p < .001$

주 1, 그것 2, 인력 3, 성별 4, 학력 5, 삶의 만족도 6, 행복감 7, 자아존중감 8, 장의적 성격 9, 근로 여부 10, 스마트폰 의존도 11, 건강상태 평가 12, 운동시간 13, 아침식사 횟수 14, 가족과의 통화 15, 가족과의 문자 16, 자녀시간 17, 자녀수 18, 가구원수 19, 자녀성적만족도 20, 자녀학교생활만족도 21, 월평균 가구소득 22, 주관적 가정경제수준 23, 월평균 사교육비

4. 개인적 자원, 가족자원이 한부모의 그릇에 미치는 영향력

한부모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관련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총 3가지의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모델 I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고, 모델 II에서는 개인적 자원을 투입하여 개인적 자원이 한부모의 그릇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모델 III에서는 가족자원을 추가해 모든 요인을 투입하여 한부모의 그릇에 어떠한 요인이 효과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공차는 모두 0.1 이상, VIF는 3 미만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Durbin-Watson은 1.515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모델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구성된 모델 I은 1.6%의 설명력을 보였으나, 모델 II에서 개인적 자원이 추가되자 설명력이 19.6% 증가하여 21.2%가 되었다. 가족자원을 추가하여 모든 변인을 투입한 모델 III은 모델 II에

비해 4.3% 설명력이 증가하며 25.5%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모든 변인을 투입할수록 한부모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한부모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가족자원을 모두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관련 변인을 모두 포함한 모델 III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는 학력($\beta = -.126, p < .05$)이 한부모의 그릇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낮을수록 한부모의 그릇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개인적 자원 중 심리자원의 영향을 살펴보면 한부모의 자아존중감($\beta = .302, p < .001$)이 높을수록 그릇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자원 중 생활시간 및 건강 자원에서는 근로 여부($\beta = -.113, p < .05$), 스마트폰 의존도($\beta = -.177, p < .01$)와 운동시간($\beta = .166, p < .01$)이 한부모의 그릇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을수록, 땀 흘려 운동한 시간이 많을수록 한부모의 그릇이 높아졌다. 가족자원 중 가족관계 및 자녀 자원에서는 가구원수($\beta = -.151,$

<표 4> 한부모의 그릇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N=284)

		Model I		Model II		Model III		
		β	t	β	t	β	t	
인구사회학적 변인	연령	.094	1.546	.065	1.175	.047	.84	
	성별 (남성=0)	-.065	-1.065	-.045	-.777	-.073	-1.209	
	학력	-.105	-1.773	-.103	-1.844	-.126	-2.037*	
개인적 자원	삶의 만족도			.083	1.218	.011	.156	
	행복감			.048	.615	-.017	-.222	
	자아존중감			.263	3.337***	.302	3.79***	
	창의적 성격			-.058	-.961	-.038	-.632	
	근로 여부 (미근로=0)			-.099	-1.803	-.113	-2.027*	
	생활시간 및 건강자원	스마트폰 의존도			-.185	-3.21**	-.177	-3.006**
		건강상태평가			-.057	-0.926	-.09	-1.466
	건강자원	운동시간			.179	3.203**	.166	2.977**
		아침식사 횟수			.089	1.6	.109	1.916
	가족 자원	가족과의 통화					.002	.036
가족과의 문자						.002	.029	
가족관계 및 자녀 자원		자녀와 보낸 시간					-.02	-.331
		자녀수					.094	1.266
가구원수						-.151	-2.064*	
자녀성적만족도						.123	2.049*	
자녀학교생활만족도						.007	.118	
경제 자원	월평균 가구소득					-.079	-1.058	
	주관적 가정경제수준					.222	3.245**	
	월평균 사교육비					.066	1.054	
Constant		2.532		2.076		2.065		
adj. R^2		.016		.212		.255		
Δ adj. R^2			.196		.043			
F		2.497		7.328***		5.414***		

* $p < .05$, ** $p < .01$, *** $p < .001$

$p < .05$)와 자녀 성적에 대한 만족도($\beta = .123, p < .05$)가 한부모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자녀의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한부모의 그릇이 증가하였다. 가족자원 중 경제자원을 살펴보면 주관적 가정경제수준($\beta = .222, p < .01$)이 높을수록 한부모의 그릇이 증가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 자녀를 둔 한부모 284명을 대상으로 한부모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의 그릇과 관련한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부모의 그릇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연령, 학력, 개인의 심리자원 중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개인의 생활시간 및 건강 자원 중 스마트폰 의존도, 운동시간, 아침식사 횟수, 가족관계 및 자녀 자원 중 가구원수, 자녀성적만족도, 자녀학교생활만족도, 가족의 경제자원 중 주관적 가정경제수준, 월평균 사교육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먼저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한부모는 그릇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Credé et al., 2017; Duckworth et al., 2007; Kwon, 2021; Zepetnek et al., 2021)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일부 선행연구(Rhodes & Giovannetti, 2022; Zepetnek et al., 2021)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행복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한부모는 그릇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윤미리 외, 2020; 하문선, 2020; Credé et al., 2017)와 일치한 결과이며, 그릇이 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변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부모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아침식사를 자주 챙겨먹고,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은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은 높은 그릇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이정민·정혜원, 2022; Zepetnek et al., 2021)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가구원수가 많다면 한부모의 그릇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그릇은 가족관계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의 성적이나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한부모는 그릇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없으며, 본 연구에서 관련성이 밝혀졌다. 청소년 자녀를 둔 한부모는 한국의 경쟁적인 입시문화 속에서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김아연 외, 2017), 한부모에게 자녀는 삶의 의미이자 원동력이기에(임세와·박주혜, 2018)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아오는 것은 한부모가 꾸준히 노력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한부모가 가

정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지각하거나 월평균 사교육비 액수가 많다면 한부모의 그릇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득 자체보다는 한부모가 주관적으로 지각한 경제수준이 그릇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학업적 성취가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한부모에게 교육비는 중요한 문제이며(여성가족부, 2021), 월평균 사교육비는 가정경제수준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작용하며 그릇과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한부모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학력, 개인의 심리자원 중 자아존중감, 개인의 생활시간 및 건강 자원 중 근로 여부, 스마트폰 의존도, 운동시간, 가족관계 및 자녀 자원 중 가구원수, 자녀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 가족의 경제자원 중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이 한부모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먼저 한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릇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이 많아 여러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여 그릇의 하위변인인 흥미의 일관성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Kwon, 2021)와 일맥상통한다. 즉, 한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여러 영역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녀양육에 집중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릇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Zepetnek et al., 2021)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그릇과 학력 간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개인의 심리자원 중 자아존중감은 한부모의 그릇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한부모의 그릇을 높였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어머니의 그릇을 높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하문선, 2020). 따라서 한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심리적 개입은 자아존중감 향상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개인의 생활시간 및 건강 자원을 살펴보면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한부모의 그릇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Zepetnek et al., 2021)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취업한 한부모는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여 총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릇을 높일 수 있는 여가활동 시간이 부족하다(김의숙·박은정, 2018). 또한 한부모는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높으며(노영희·김상인, 2016), 직무스트레스는 그릇을 낮춘다(박혜린·어성연, 2022). 이에 한부모가 생계와 자녀양육을 홀로 책임지면서 생기는 어려움이 한부모의 그릇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를 하지 않는 표본 수가 적고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기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을수록, 땀 흘려 운동한 시간이 많을수록 한부모의 그릇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

는 선행연구(이정민·정혜원, 2022; Zepetnek et al., 2021)와 일치한다. 즉, 한부모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고 운동을 많이 하는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때 한부모의 그릇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부모의 시간 사용에 대한 연구(김외숙·박은정, 2018)에 따르면 여성 한부모는 남성 한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더 적은 여가시간을 가지며, 성별과 관계없이 한부모의 여가시간은 미디어 시청에 편중된 경향이 강하다. 이에 한부모가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가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노동시간 외 생활시간의 확보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한부모에 대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자녀 돌봄 지원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2025년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의 전국적 도입이 계획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3). 그러나 아이돌봄 서비스와 늘봄학교는 각각 만 12세 이하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 일·생활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양육 병행이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자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관계 및 자녀 자원에서는 가구원수와 자녀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한부모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한부모의 그릇이 감소하였다. 빈곤한 한부모가족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더 크게 느꼈다는 선행연구(최하영·김민영, 2020)를 토대로 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한부모가족의 부모는 부양할 가족이 많아질수록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 활동에 시간을 더 투자하며 가족구성원 각각에 대해 관심을 두고 돌봐야하므로, 일관된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한부모가 자녀의 학교성적에 대해 만족할수록 그릇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를 둔 한부모에게 자녀가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아오는 것은 자녀양육을 잘 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는 한부모가 꾸준히 자녀양육에 힘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게 하는 자원을 탐색하는 데 있어 부모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부모자녀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함을 시사한다.

가족의 경제자원 중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한부모의 그릇이 증가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Kwon, 2021)와 일치한 결과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자원을 탐색할 때 가구소득 자체보다는 가족구성원이 가정경제수준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주관적인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부모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소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서는 자녀의 학업 지원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2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교육지원비가 추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통계청, 2022)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1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교육지원비는 매우 부족하다. 한부모가족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자녀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으므로(고선강, 2018), 청소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은 교육비 측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98개 가족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센터의 자녀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청소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부모 개인과 가족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발견하였으며, 한부모의 심리자원 강화와 생활시간 확보 및 자녀 교육 지원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 및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를 둔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부모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부모의 자녀는 유아기나 아동기 혹은 성인기의 다양한 발달단계에 있을 수 있으며,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한부모의 그릇 양상은 다를 수 있다. 부모의 그릇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음을 함께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대상을 다양하게 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를 둔 한부모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 자원을 밝혔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구체적인 그릇 경험 양상을 살펴보는 못했다. 따라서 한부모의 그릇 경험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수 선정에 있어 다소 한계가 있었다. 분석 자료의 한계로 서열변수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변수 선정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한부모가 된 기간, 한부모가 된 배경 등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부모의 그릇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 및 가족 자원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자녀를 둔 한부모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한부모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고선강(2018). 한부모가족의 가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지출 비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1), 99-118. DOI : 10.22626/jkfrma.22.1.006.
- 2) 권대훈(2016). 통제소재, 미래시간조망, 그릿(grit)과 지연의 관계 분석. 교육학연구, 54(4), 21-43.
- 3) 김동일 · 정여주 · 이주영 · 김명찬 · 이윤희 · 강은비 · 금창민 · 남지은(2012).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2), 629-644.
- 4) 김숙미 · 구광현 · 김보현(2020). 영유아교사의 인성, 그릿, 창의성 간의 구조적 관계: 그릿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20(3), 91-104.
- 5) 김가연 · 박보경 · 김수지 · 이선희 · 도현심(2017).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됨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4(8), 161-193.
- 6) 김외숙 · 박은정(2018). 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과 시간부족감의 성차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3), 1-19. DOI : 10.22626/jkfrma.22.3.001.
- 7) 김진구 · 바다은(2018). 청소년기 그릿과 시련극복역량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1), 51-67.
- 8) 김혜선 · 김은하(2010). 이혼한 여성 한부모 어머니의 경험-삶의 위기에서 시작된 경험들. Crisisonomy, 6(1), 219-242.
- 9) 김희명 · 황매향(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의 타당화. 교육논총, 35(3), 63-74.
- 10) 노영희 · 김상인(2016). 한부모의 자녀양육어려움, 고용지위,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부모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4(2), 167-185.
- 11) 류영주 · 양수진(2017). 내재적 · 친사회적 동기와 삶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Grit)과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4), 93-115.
- 12) 문은영(2011). 서울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본 부자(父子) 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사회연구, 1(2), 135-174.
- 13) 박주하 · 배유진 · 양수진(2021). 영아-걸음마기 자녀를 둔 초산모의 그릿과 행복감의 관계: 삶의 의미와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4), 1-20.
- 14) 박혜린 · 어성연(2022).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6(4), 109-127.
- 15) 백은영 · 이명우(2018). 이혼을 선택한 여성 한부모의 행복 경험. 재활심리연구, 25(2), 299-325.
- 16) 서미옥(2019). 그릿(Grit)과 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학연구, 57(1), 105-130.
- 17) 서현아 · 엄세진(2019).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인성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 행복감의 매개효과. 생태유아교육연구, 18(2), 173-197.
- 18) 서현원 · 이선영 · 임혜정(2021). 부모 자녀 대화시간이 자녀의 그릿(Grit)에 미치는 영향: 비일관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교육논총, 41(3), 123-143.
- 19) 성미애(2020). 청소년 자녀가 있는 남성 한부모의 어려움 관련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8(1), 1-15.
- 20) 여성가족부(2021).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21) 여성가족부(2023).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여성가족부.
- 22) 연은모 · 최효식(2021). 한부모가 된 후의 변화 및 어려움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우울 수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6), 550-557.
- 23) 윤기봉(2020). 어머니의 끈기가 청소년의 끈기에 미치는 영향: 부모 자녀 간 대화시간을 통한 양육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8(2), 15-28.
- 24) 윤미리 · 이현정 · 홍세희(2020). 어머니와 자녀의 그릿(Grit)과 행복감,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교육문제연구, 33(3), 1-24.
- 25) 이만수 · 박정윤(2022). 부자가족 아버지의 자녀 양육 자원에 대한 사례연구: 이혼한 남성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6(4), 1-13. DOI : 10.22626/jkfrma.26.4.001.
- 26) 이미란 · 이혜원 · 탁정화(2017).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과 그릿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 491-512.
- 27) 이정민 · 정혜원(2022). 어머니와 중학생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그릿 간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모형 적용. 한국교육문제연구, 40(2), 55-82.
- 28) 이혜원 · 탁정화(2018). 예비유아교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아존중감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7(1), 251-276.
- 29) 이효진 · 박수빈 · 김희정(2022).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우울 관련 요인: 성별 그룹 간 차이를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31(1), 36-46.
- 30) 임세와 · 박주혜(2018). 한부모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역량접근에 기반하여. 열린부모교육연구, 10(3), 1-28.
- 31) 장명선 · 이영호(2016).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적 요구와 방안 모색.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2), 141-163.
- 32) 장혜원 · 최하영(2021). 학령기 자녀를 둔 남성한부모의 어려움-초등학생 자녀와 중 · 고등학생 자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8(4), 35-67.
- 33) 전향신 · 박분희(2020). 어머니그릿, 자녀그릿,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 간의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 청소년학연구, 27(8), 329-355.
- 34) 정수진 · 손영우 · 이수란(2021). 그릿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 목표-현재 일자리 일치도의 매개효과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4(2), 153-182.
- 35) 정예림 · 김예본 · 양수진(2021). 초산모의 그릿(Grit), 배우자 지지와 연령 수준에 따른 양육 열정, 산후 우울, 행복의 차이.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5(3), 177-183.
- 36) 최인수 · 표정민(2014). 한국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1), 27-47.
- 37) 최하영 · 김민영(2020).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한부모의 빈곤과 자녀양육어려움에 관한 연구-빈곤심도와 다차원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7(3), 35-71.
- 38) 통계청(2021a). 2021년 가계금융 · 복지조사. 통계청.
- 39) 통계청(2021b).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40) 통계청(2022).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통계청.
- 41) 하문선(2020). 청소년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그릿 및 삶의 만족 간 관계: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4), 1297-1323.
- 42) 허수연(2018). 한부모가족 여성의 자녀와의 시간과 자녀의 삶 만족에 관한 연구: 부모감독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59, 5-26.
- 43) 황미송 · 윤성민(2022). 어머니의 자기 지향 완벽주의와 양육불안의 관계에서 그릿(Grit)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3(1), 505-516.
- 44) 황용재 · 김창겸(2020). 부모의 그릿이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자율성지지와 강요에 의한 다중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7(4), 27-47.
- 45) 황진구 · 전현정 · 이용혜(2022). 2022 한국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6) Cashion, B. G.(1982). Female-headed families: Effects on children and clinical implication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8(2), 77-85.
- 47) Credé, M., Tynan, M. C. & Harms, P. D.(2017). Much ado about grit: A meta-analytic synthesis of the grit liter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3(3), 492-511.
- 48)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49) Duckworth, A. L.(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NY: Scribner.
- 50)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51) Duckworth, A. L. & Quinn, P. D.(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 52) Ericsson, K. A., Krampe, R. T. & Tesch-Römer, C.(1993). The role of deliberate practice in the acquisition of expert performance. Psychological Review, 100(3), 363-406.
- 53) Eskreis-Winkler, L., Shulman, E. P., Beal, S. A. & Duckworth, A. L.(2014). The grit effect: Predicting retention in the military, the workplace, school and marriage. Frontiers in Psychology, 5, 36.
- 54) Gough, H. G. & Heilbrun, A. B.(1983). The adjective check list manual.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55) Joy, K., Prathap, V., Rajan, A. P. & Vandana, V. S.(2020). Influence of parent's grit on student's grit and the effect of other social determinants upon the relation. Indian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1(2), 71-74.
- 56) Kwon, H. W.(2021). What can sociology say about grit? A cross-cultural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sense of control, and grit. Socius, 7, 1-12.
- 57) Lindblad-Goldberg, M.(2006). Children in family contexts: Perspectives on treatment (2nd ed). NY: Guilford Press.
- 58) Rhodes, E. & Giovannetti, T.(2022). Grit and successful aging in older adults. Aging & Mental health, 26(6), 1253-1260.
- 59)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60) Whisenhunt, J. L., Chang, C. Y., Parrish, M. S. & Carter, J. R.(2019). Addressing single parents' needs in professional counseling: A qualitative examination of single parenthood. The Family Journal, 27(2), 188-198.
- 61) Zepetnek, J. T., Martin, J., Cortes, N., Caswell, S. & Boolani, A.(2021). Influence of grit on lifestyle facto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a sample of adults in the United Sta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5, 110705-110711.

■ 투 고 일 : 2023년 03월 03일
 ■ 심 사 일 : 2023년 04월 10일
 ■ 게재 확정 일 : 2023년 05월 10일